우주보다 먼 남극의 실체 바다속 탐험

남극이 부른다

박숭현 지음

"우주에는 몇 분이면 도착하는데, 남극 기지에 오려면 며칠이 걸리는 군요. 여기가 우주보다도 머네요."

일본의 우주비행사 모리 마모루가 자국의 남극 기지를 방문하면서 한 말이다. 단순히 이동 시간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남극까지는 약 1만3400km다.

그에 비해 우주는, 다시 말해 지구와 우주 사이를 규정하는 경계인 카르만 라인(해발고도)은 약 100km 지점에 위치한다. 외기권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km 지점이면 우주라 해도 무방하다할 수 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얘기한다면 남극은 우주보다 더 '멀다'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극의 실체는 무엇일까?

남극 해저 탐사를 다룬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숭현 박사가 펴낸 '남극이 부른다'는 남극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탐험일지다. 저자는 한국의 아라온호를 비롯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연구선을 타고 매해 대양으로 나간다. 주로 지구의 내부 물질과 에너지가 나오는 통로인 해저 중앙 해령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저자와 그의 연구팀들은 남극권 중앙 해령 최초의 열수 분출구 발견, 남극권 신종 열수 생명체 발견, 남극 해저의 새로운 맨틀을 발견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해양 탐사는 특성상 이리저리 배를 옮겨 타고 떠돌아다닌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선도 사람처럼 국적이 있다 보니 선적에 따라서 문화와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다른 문화와 접하고 다른 문화권과 접하는 것은 하나의 경험을 넘어 양식이 된다. 그가 해양 탐사를 "단순한 과학 연구를 넘어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며 이문화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저자는 2015년 세계 최초 남극권 중앙 해령의 열수 분출구와 신종 열수 생명체를 발견해 화제를 모았는데, 이때 '무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무진의 안개를 떠올리게 하는 열수의 현상과 탐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모호한 느낌을 반영했다.

저자의 글에 특유의 감성이 담겨 있는 것은 그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보이지 않는 저편, 단단한 해저에 잠든 매력적 이야기를 캐내 독자들에게 맛깔스러운 글로 전달한다. 바다가 품은 지구에 대한 신비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다.

펭귄은 남극을 대표하는 생물이다. 〈동아시아 제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은 "그의 글에는 소설가로서의 재능이 숨어 있다. 과학적인 내용이지만 소설같이 읽는 재미가 있다. 필자의 폭넓은 지식이 군데군데 양념처럼 들어가 색다른 맛이 난다"고 평한다.

책을 읽다보면 곳곳에서 바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아니 그것은 지구가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다. 저자는 "땅만 바라봐서는 지구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지구의 순환이 태양과 우주, 생물체, 지구 내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어우러진 '전 지구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바다가 거대한 순환의 한 축을 이룬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즉 바다를 연구하는 것은 지구를 연구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귀결된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구를 이해하는 방편은 모든 변화와 지구 내부의 활동을 고려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상과 이별을 고하는 28인의 마지막 고백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

이청 지음·이재희 번역

'죽음을 앞둔 분들의 유언을 모집합니다.'

뉴욕타임즈 한 귀퉁이에 작은 광고가 실렸다.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할 수 없었던 말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지상의 비밀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당신의 비밀과 바람을 안심하고 맡긴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라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 사서함을 통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영혼의 금고지기'였다. 이 광고는 '인간은 언제 참회하고 싶어할까'를 주제로 논문을 쓰던 한 심리학자가 낸 것이었다.

베이징에 거주하며 심리학 관련 글을 쓰고 번역하는 이청이 펴낸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죽음을 앞둔 28인의 마지막 편지'는 이 세상과 이별을 고하는 이들이 절실하게 써내려간 참회록이자, 남아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당부와 사랑 이야기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심리학 석사 과정을 밟던 저자는 임종 유언을 수집하기 위해 뉴욕 공공 도서관에서 유명인들의 '마지막'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말에는 철학과 지혜, 유머가 담겨 있기는 했지만 생생한 참회의 마음은 만나기 어려웠다.

그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면 누구나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털어내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고, 현재 뉴욕에 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350달러짜리 광고를 내고 1주일 후, 구불구불거리는 글씨로 쓰인 '첫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일흔 여섯 노인이 보낸 편지엔 그가 50년간 숨겨놓은 비밀과 참회가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 집배원이었던 그는 질투심에 눈 멀어 짝사랑하던 여자가 전쟁터에 있던 약혼자와 주고받던 편지를 어느 순간부터 전달하지 않았고, 마지막 편지마저 가로챘다. 결국 시름시름 앓던 그녀는 죽고 말았고, 그는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평생을 혼자 살았다.

그는 "만약 세상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저 장미 한 송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단 이틀만 살다 시들어 죽더라도, 사랑하는 이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만 살다 가고 싶다"고 참회한다.

저자가 받은 편지는 수 천통에 달했다. 편지를 보낸 이는 택시 운전사, 대기업 총수, 가정 주부, 에이즈 환자, 할리우드 배우 등 다양했다. 편지의 내용은 수년 간 숨겨온 비밀, 누군가의 콤플렉스 등이 담겨 있었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어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구제불능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틈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치와와 '피치'에게 전 재산을 모두 남긴 한 남자의 고백,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싶어 했던 거짓말 때문에 결국 부모님이 헤어지고 말았던 사연을 전하며 엄마, 아빠의 재회를 바라는 백혈병에 걸린 다섯살 꼬마 이야기 등 책에 실린 28통의 편지는 남아있는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쌤앤파커스·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아름다운 도시 부산의 속살과 참모습을 보여주는 가이드북이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정보제공을 넘어, 먹거리부터 볼거리까지 부산의 일상과 정서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냈다. 관광지로만 알고 있던 부산의 속살들을 엿볼 수 있다. 자연, 역사, 문화, 예술, 추억, 음식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적이지만 특별한' 부산의 명소도 소개한다.

〈호밀밭·1만5800원〉

▲청소년을 위한 사회평등 에세이=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사회학자의 눈으로 설명하고, 청소년들이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성별, 장애 유무, 성적 지향, 외모, 인종, 민족, 건강, 결혼 여부, 출신 지역 등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개인 정체성에 따른 불평등 현상을 심도 있게 다룬다. 〈해냄출판사·1만5800원〉

▲AI 시대, 문과생은 이렇게 일합니다=인공지능, 즉 AI가 단순히 인간을 위협하는 약탈자가 아닌 '누구나 사용하는 EXCEL 같은 도구'임을 알려준다. 또 AI를 전혀 모르더라도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AI 활용 타입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기업이 어떤 유형의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45개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시그마북스·1만6500원〉

▲라이프스타일로 마케팅하다=남들하고 차별화된 일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트렌드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 기획과 마케팅은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시대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저자는 일상과 경험이 자랑할 만한지를 찾아 라이프스타일을 기획하는 것을 제안하며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가치있는지 알려준다. 〈라온북·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으르렁 이발소=갈기가 덥수룩하게 자랐지만, 이발소에 가기 싫어하는 아기 사자와 그런 아이를 이발소에 데려가려고 애쓰는 아빠 사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사자 부자의 팽팽한 신경전과 그 끝에 마련된 재치 있는 반전은 아이와 양육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표현한다. 작가는 아기 사자를 닮은 어린이에게 어른에게 귀속된 존재가 아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전한다. 〈창비·1만3000원〉

▲마음여행=꿈에 대해 고민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했다. 사람마다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이 마음도 다 다르다. 똑같은 마음을 갖도록 강요받던 주인공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나의 마음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 저자는 주인공의 여정을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표현했다. 〈오올·1만4000원〉

▲걱정이 너무 많아=걱정이 많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다. 책에는 우스꽝스럽지만 어쩐지 귀여운 캐릭터인 걱정 괴물이 등장해 그린이를 괴롭힌다. 작가는 아이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누구나 갖고 있는 '걱정'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또 걱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고,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조언을 통해 걱정과 잘 지내는 방법도 알려 준다.

〈길벗어린이·1만3000원〉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예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붉음이 제 몸을 휜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답으로 칠게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 新 글러브 중독자 마경덕
사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메타자본세콰이어 신전 강대선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둥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예정
정영주 시집